

광주극장 화제작 '게스트 초대석' 이어진다

14일 '조선인 여공의 노래'
16일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20일 '똥 싸는 소리' 등 진행
영화극장 등 특집상영 다채

8월 광주극장에서 화제작 GV(게스트 초대석)가 잇따라 열리는 등 식지 않는 썸머 무비축제가 이어진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바다 건너 오사카의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 소녀들의 삶과 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 GV가 오는 14일 오후 7시 20분에 예정돼 있다. 영화를 연출한 이원식 감독과 정진미 PD가 참석하며 진행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고야의 바보들'을 연출한 임용철 감독이 맡는다.

누적 관객 1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최초 축구 서포터즈 다큐멘터리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의 GV는 오는 16일 오후 7시20분에 열린다. 공동 연출한 선호빈 감독, 나바루 감독이 참석하고 진행은 박정수 영화평론가 맡는다. 영화는 2004년 K리그를 뒤흔든 안양 LG치타스 연고지 이전 사태 이후, 팀을 되찾기 위해 나선 서포터즈 RED(레드)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여정을 담고 있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사)실로암사람들이 공동제작한 조재형 감독의 장편영화 '똥 싸는 소리'의 GV는 오는 20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최지원 피디의 진행으로 영화를 연출한 조재형 감독과 주연을 맡은 임도윤 배우가 참석한다. '똥 싸는 소리'는 일도 사랑도 잘 해내고 싶은 하반신 마비의 여성 장애인 '미숙'의 삶과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

화다. 장편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박석영 감독의 다섯 번째 작품 '샤인'의 GV가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조영각 피디가 진행하고 박석영 감독이 참석한다. '샤인'은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혼자자 된 열여섯 살 '예선' 앞에, 엄마에게 버려진 여섯 살 '새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채로운 특집상영도 이어진다. 영화사에 빛나는 고전 걸작을 상영하는 '월간 클래식: 20세기 명화극장'의 8월 상영작은 현대 범죄 스릴러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프리츠 랑 감독의 '엠 M(1931)'이다. 영화는 오는 15일과 18일 2회 상영된다. 영화는 행방이 묘연한 연쇄 살해범을 잡기 위해 도시의 모든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다. '비포 선셋'은 빈에서의 꿈 같은

만남이 지나고 9년 후, 프랑스 파리에서 운명처럼 재회한 제시와 셸린의 애절한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거닐며 서로의 삶과 사랑에 대한 변화를 되돌아 본다. 오랜만의 재회로 다소 낯설고 어색하던 제시와 셸린이 대화 속에서 다시 애뜻함을 찾게 되고, 또 변화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외면하고 주저하는 모습까지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사랑의 복잡성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영상 시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 최고의 걸작 '희생'은 오는 21일 리마스터링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상영작 시간표는 광주극장 카페(<https://cafe.naver.com/cinemagwangju/16644>)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살디, 하반기 청소년 활동 참여자 모집

23일까지 17~19세 대상
합합·베이킹 등 8개 과정

광주청소년살디디자인센터(살디)는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택해 또래와 함께 배워 나가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하반기에 8개의 과정이 개설되고 17~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살디는 2020년부터 광주시, 광주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813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관연계형, 자율기획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총 8개 과정이 개설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매주 1회 3시간씩 활동하게 된다.

기관연계형 '가지가지 프로젝트'는 전남대, 북구문화의집 등 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력한다. △사람책 제작 △합합댄스 △소설창작 △베이킹 △만화애니툰 △공간건축 △영화비평 총 7개가 열린다. 참여자는 평소 배우기 어려운 과정을 전문가에게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다.

자율기획형 '제멋대로 프로젝트'는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과 실천, 결과 발표까지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다.

페이지(samdi.or.kr)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도선인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스쿨 “전기를 자급자족 할 수 있을까?”

2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 303호에서 2024년 네 번째 과학스쿨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자급자족 공동체'라는 주제로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김운수(사진) 교수를 초청한다. 우리 주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작은 지역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와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김운수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사 및 공학박사 학위를 취



득하고한국전기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가상발전소 모델링, 에너지 최적 관리기술 개발, 전력망 해석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과학스쿨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사전예약 후 현장 입장이 가능하다.

2024 과학스쿨 하반기 강연은 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에서 진행되며 행사 참여

시 추천을 통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강연 참여 후기를 SNS에 게재하면 선착순으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또 별도의 스탬프 미션을 달성한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기념품까지 제공된다.

한수민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점차 늘어나는 전기 수요량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대규모 전기설비를 대체할 미래 과학기술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또는 과학스쿨 누리집(scienceschool.g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 사이버과학관에서 지난 강연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24 사진프로그램 '아트마켓' 운영

5회차 '문인화협회' 작품
6회차 '남도야시장사업단'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10월 '아트광주24' 개막을 앞두고 사전프로그램으로 상설 '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5회차 행사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미술관(동구 예술의거리 소재)에서 열린다. '문인화협회' 회원 23명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 현장에 미술 전문 도슨트가 배치돼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줄 예정이다. 오는 16일 '문인화협회' 전시·판매전 오프닝과 문화강좌가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후 5시, 문화강좌는 오후 6시 30분 광주미술관에서 예정돼 있다. 윤익 아트광주24 예술감독이 진행을 맡아 '작가와 미술시장의 관계성'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아트마켓 6회차는남도달밤야시장사업단과 연계·협력해 오는 21일 대인예술시장 내 별별상상정원에서 열린다. 특히 아트광주24 참여작가들 대상으로 문화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강좌 청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구글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트광주24 사무국(062-670-7442)으로 신청해도 된다. 참가비는 무

려다. 아트마켓에 출품된 작품은 광주문화예술통합홍보플랫폼인 '디어마이광주' 아트스토어에서 다시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다. 아트마켓은 아트광주24가 종료되더라도 오는 12월 말까지 '디어마이광주' 아트스토어에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